

전기학회 조사사업을 되돌아보며



김 동 상

(부회장, 이천전기(주)부사장)

우리전기학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창립 이래 우리나라 전기공학의 요람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왔음은 우리들의 자랑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학회지와 논문지를 통하여 학계에서 그리고 산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높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였으며 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를 통하여 주목같은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광장을 갖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구방향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연구방향을 따라 초점을 맞추어써 그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하여는 현실의 조사사업의 필요성이 급격히 요구되고 있음을 느끼게됩니다.

현재 접하고 있는 부분, 장래 꼭 필요한 부분등을 샅샅이 정리하고 항목별로 현황과 전망, 문제점등을 심도있게 조사정리하여 제시하므로써 우리전기인들은 우리의 현위치를 자각하고 앞으로의 연구개발방향을 효율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조사사업이 전기학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되고 있으며 각계의 핵심회원들의 헌신적 참여로 수준높은 조사보고서가 엄청난게 매년 발행되고 있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으나 우리도 학회의 중요 사업으로

조사사업을 시작한지도 2년이 가까워웁니다. 이미 고속전철기술조사전문위원회, 초전도응용조사전문위원회, 소형전동기술조사전문위원회, 전자장수치해석조사전문위원회가 각기의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뒤이어 전력사업장기전망조사전문위원회, 전기자동차조사전문위원회, 고조파저감기술전문위원회, 신호설비최적공정특별전문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를 직접담당한 회원들의 헌신적 역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학회가 조사사업을 시작한 역사가 짧은탓에 어려움도 없지않았습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가지 희망을 회원여러분과 의론코져 합니다.

1. 조사업무에는 보다많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명목상 인원구성이 아니고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 보다 충실한 현황파악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인원구성을 하고 실체는 위원장이나 간사가 자기의사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종종 보이는바 이는 해가 거듭되면 시정될것으로 믿읍니다. 이는 우리회원들의 학회활동성의가 기대수준까지 못미친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인 경우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학회참여시 전철교통비정도 지불하는데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느낌을 주게합니다.

2. 기왕에 조사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를 엮어가기 위하여는 관련된 권위있는 국내의 자료 조사가 용이

하여야하는바 아무래도 선진국같지못하므로 폭넓은 조사를 위하여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만들어진 조사 내용도 입수된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객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야할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해외자료가 입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충실한 자료수집이 될것으로 믿읍니다만 우리회원들이 사적으로 갖고있는 자료도 서로공개하여 자료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토록 요망합니다.

3. 조사과제를 미리 공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 조사사업을 위하여는 과제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초기이므로 그동안은 조사업무 참여회망자의 신청으로 과제와 담당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원여러분의 제안으로 과제를 수집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정리하여 과제와 담당을

선정토록 발전 시켜야 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절대필요함을 강조합니다.

4. 만들어진 조사보고서는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의 결정인 보고서는 회원여러분이 반드시 확보하고 수시로 자기업무의 지침이 될수있도록 활용하지 않으면 그가치를 발휘할수가 없습니다. 조사보고서 소유하는것을 우리전기학회회원의 금지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모두 힘과 뜻을 모아 학회조사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특히 기업체에 조사하시는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조사사업에 참여해주신 회원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